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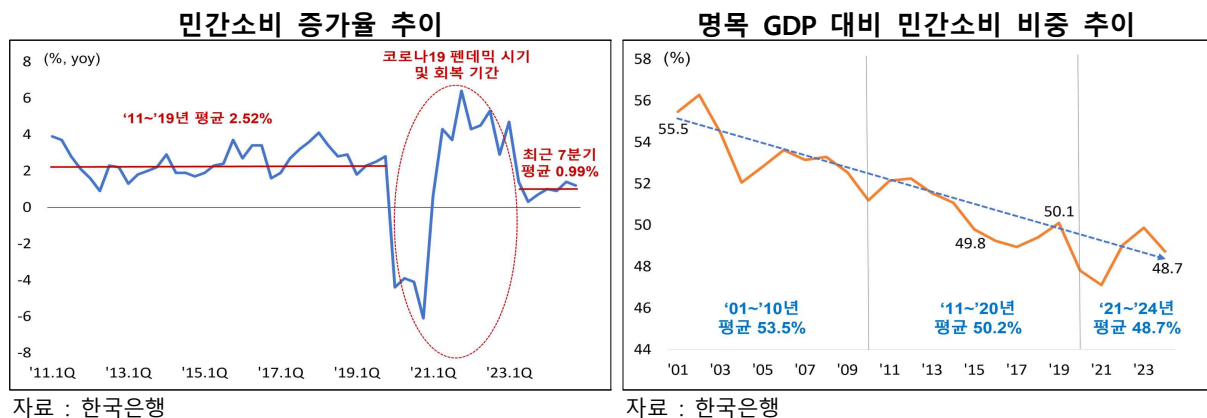
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 동향 및 특징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류 용 옥 (yoryu11@kdb.co.kr)

- ◆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, 코로나19 이후 고금리·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 및 소비심리 악화가 단기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
- ◆ 단기적인 하락 요인이 해소되더라도,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민간 소비가 과거와 같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□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'24년에는 1.1% 증가에 그침

- '23.2분기부터 '24.4분기까지 7분기 연속 1.5% 미만의 성장을 기록하며 민간소비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
 -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'11~'19년 2.52%였으나, 최근 7분기는 0.99%로 대폭 하락
- 명목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로 '01년 55.5%였으나, '15년에 처음 50% 아래로 떨어진 후 '19년(50.1%)을 제외하고 50% 이하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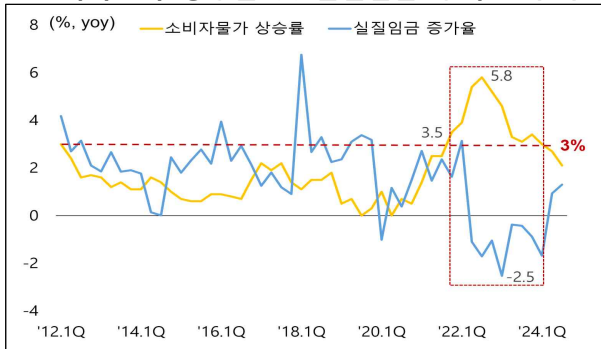
□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,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이 민간소비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

- '21.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'11.4분기(4.0%) 이후 처음으로 3%를 초과하였으며, '23.4분기까지 9분기 연속 3% 초과 상태를 유지하며 고물가 현상 지속
 - 높은 물가 상승률로 실질임금이 '22.2분기부터 '24.1분기까지 8분기 연속 하락함에 따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며 민간소비 둔화
- 기준금리는 '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.5%를 '23.1월부터 21개월간 지속하였으며, '24.10월 및 11월 각각 25bp씩 인하하였으나 여전히 3%대의 고금리 상태

- 가계부채의 확대* 기조 속에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여 소비여력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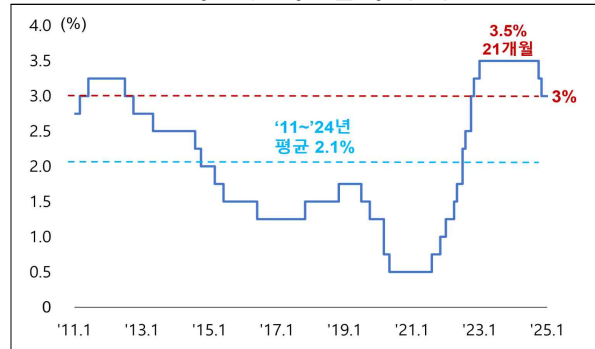
* 가계신용잔액(조원): 916('11년말) → 1,203('15년말) → 1,601('19년말) → 1,868('22년말) → 1,914('24.3Q)

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질임금 증가율 추이



자료 : 통계청, 고용노동부

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□ '24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 및 금리 인하기 진입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,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중장기적으로 과거와 같은 수준은 어려울 전망

○ 출산율이 하락세를 지속하여 '18년에 1 아래로 떨어졌으며,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민간소비 증가율도 하락 추세 예상

- 한국은행 잠재성장률 추정치*에 따르면, '01~'05년 5%였던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여 '25년 이후에는 2%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**

* 이은경 외('24.12), "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", BOK 이슈노트 제2024-33호 인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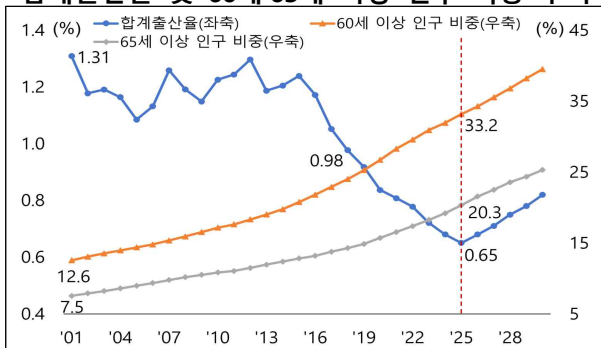
** 잠재성장률 추정치: 1.8('25~'29) → 1.3('30~'34) → 1.1('35~'39) → 0.7('40~'44) → 0.6('45~'49)

○ 노후 대비용 저축 증가 등에 따른 소비 감소 추세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,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이 더 크게 하락

- '15년을 기점으로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이 전체 평균소비성향을 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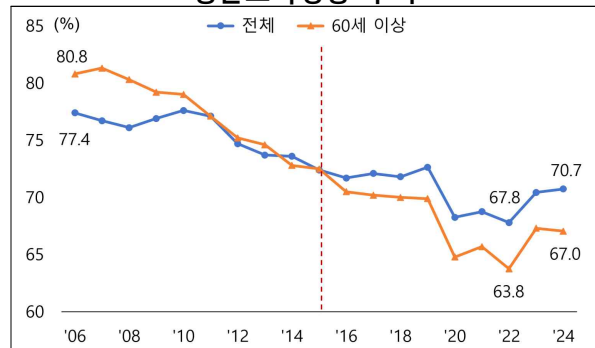
○ 이 외에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지속, 소득과 순자산이 낮은 1인 가구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
합계출산율 및 60세·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



자료 : 통계청 ('24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 자료로 예상치)

평균소비성향 추이



자료 : 통계청